

茶山 丁若鏞의 飲茶와 茶詩

김상현(동국대 교수)

I. 다산 초당의 다산

실학의 집대성자이자 대문학가이기도 했던 茶山 丁若鏞(1762~1836), 그의 생애는 수학기, 사환기, 유배기, 귀환기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는 강진(康津)에서의 유배생활입니다. 그의 40~50대의 해당하는 이 시기는, 그 자신에게는 암울한 때이기도 했지만, 그의 학문적 업적이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진 유배생활 18년 중, 8년은 읍내에서 나머지 10년은 다산초당(茶山草堂)에서 보냈습니다. 유배생활이 시작되는 1801년으로부터, 그는 강진읍 동문 밖의 술집에서 지냈습니다. 주민들이 그와 만나기까지 꺼리는, 참으로 적막한 4년이었습니다. 다산은 1808년(순조 8년) 강진읍으로부터 10여 리 떨어진 다산동으로 그의 거처를 옮겼다. 사의재(四宜齋), 보은산방(寶恩山房) 등으로 몇 차례 그의 우거(寓居)를 바꾸며 전전하기 8년째 되는 해였다. 그는 다산동에서 동·서암(東西庵)을 짓고서, 고독하고 쓸쓸한 가운데서도 비교적 안정된 심경으로 저술 생활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이곳 다산동에 정착할 당시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무진년 봄에 다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축대를 쌓고 연못을 파기도 하고, 꽃나무를 벌여 심고, 물을 끌어다 폭포를 만들기도 했다. 동서 이암(二庵)을 마련하고 장서 천여 권을 쌓아두고 저서로써 스스로 즐겼다. 다산은 만덕사(萬德寺)의 서

쪽에 위치한 곳인데 처사(處士)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이다. 석벽(石壁)에 ‘정석(丁石)’ 두 글자를 새겼다.

지금까지도 이때 다산이 봤던 연못이 있고 뒷산 바위에는 그가 써서 새긴 ‘정석(丁石)’ 두 글자가 뚜렷이 남아 있다. 이처럼 다산은 다산동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서 10여 년을 오롯이 저술생활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때 그가 저술한 것은 바로 이서일표(二書一表)와 육경(六經) 사서(四書)에 관한 평의(評議) 등으로, 일찍이 정인보(鄭寅普)가 평한 대로 조선 5천 년간 둘도 없는 대부의 저술을 남기었던 것이다. 다산이 10여 년을 머물며 정들었던 다산동은 거기에 차나무가 야생하고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며, 또 다산(茶山)이란 호 또한 이 다산동이라는 지명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다산을 차와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다산은 사실 뛰어난 차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다산은 차를 사치스럽게 즐기거나, 야단스럽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옛 차인들의 취미를 엿보고자 원했습니다. 스스로 차 끓이는 부엌을 만들고, 한 수 시를 썼던 것도 마을사람에게 새 차 한 포를 얻고 마냥 즐거워했던 것도, 다함시첩(茶盒詩帖)이라는 시집을 남겼던 것도, 정들었던 다산을 떠날 때, 제자들과 더불어 다신계를 조직하고, 해마다 차를 보내 줄 것을 당부했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습니다. 다산은 차 부엌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읊기도 했다.

壘壁小茶竈 벽돌로 만든 작은 차 부엌은
離火巽風形 이화선풍(離火巽風)의 형상인데
茶熟山僮睡 차는 끓는데 산동은 졸고
裊煙擲自靑 피어나는 연기 스스로 푸르다.

차물이 끓고 있는 옆에 산동(山僮)이 조는 풍경은 한가하고 조용한 정경이다. 푸른 연기가 가늘게 나부끼다가 흩어져 가는 허허로운 공간으로 이 시인의 마음 또한 가 있었으리라.

다산은 어느 봄날 햇차를 맛보고 육원중(陸原中), 윤외심(尹畏心) 등과 더

불어 시를 지어 화답하며 여유를 찾기도 했다. 다음 「신다(新茶)」(丁茶山全集 1集 卷7)는 다산의 작품이다.

銷金帳外建高牙 금장(金帳)을 건은 밖에 아기(牙旗) 높이 세우고
蟹眼魚鱗滿眼花 해안과 어안이 눈에 가득 꽃처럼 피어오른다.
貧士難充日中飯 가난한 선비는 점심 먹기조차 어려운데
新泉謾煮雨前芽 맑은 샘물로 우전차를 한가로이 끓인다.
民憂莫問群仙境 신선의 경지에선 백성 근심 묻지 마라.
水厄誰分謝客家 누가 사객가(謝客家)에서 수액(水厄)을 나누었나.
自信胸中無壅滯 가슴속엔 막히고 체한 것 없다고 자신했는데
喫添清苦更堪誇 맑은 차 마셔보니 다시 자랑할 만하다네.

다산이 강진에서 문산 이재의(文山 李載毅)와 화답한 차시가 전해지는데, 다음의 시가 다산의 작품이다.

雨後新茶如展旗 비 갠 뒤 새 차 잎 깃발인양 피어나니,
茶籌茶碾漸修治 차 부엌 차 맷돌 살펴야 하겠구나.
東方自古無茶稅 동방엔 예로부터 차 세금 없었거니,
不怕前村犬吠時 앞마을 개 짖는 소리 두려워 마라.

봄비에 차나무의 잎 피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을 노래했다. 머지않아 새 차의 그 향긋한 향미를 맛보게 될 것임에 다구(茶具)를 손질하며 준비하는 그 잔잔한 기쁨은 참으로 차 맛을 아는 이 만의 즐거움이리라. 그러나 문득 차를 거두어 갈 관리가 찾아올 걱정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차세가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걱정을 잊고자 하는 것이다.

다산은 일찍부터 차를 마신 것 같다. 21세 되던 임인년(1782) 어느 봄날 마을 사람으로부터 신차 한 포를 얻었다. 체천(楸泉)의 맑은 샘물을 길어 그 맛을 시험해 보리라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도 했다. 「춘일체천잡시(春日楸泉雜詩)」(與猶堂全書 1集 卷1)라는 제목이다.

鴉谷新茶始展旗 아곡의 차 잎이 처음으로 피어날 제
 一色纔得里仁胎 한 포를 마을 사람의 호의로 얻었노라
 棣泉水品淸何似 체천(棣泉)의 수품(水晶) 얼마나 맑은지
 閑就銀瓶小試之 한가히 은병으로 시험해 보리라.

금책산 북쪽에 백아곡(白鴉谷)이 있고, 그 곳에는 작설차가 난다고 했다. 체천은 서울의 창동에 있던 샘물이었는데, 그 좋은 우물물로 시험 삼아 차를 다리겠다는 기쁨이 엿보이는 시다. 다산에게 은병(銀瓶)은 어울리지 않는 다구(茶具)지만, 좋은 차를 얻었기에 그것을 은병에 달여 보겠다는 문학적인 표현일 것이다.

II. 茶山과 惠藏과 茶

실학(實學)의 집대성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은 대흥사와 매우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이다. 그가 강진에서 18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된 까닭에 맺어진 인연이다. 대흥사의 승 혜장(惠藏), 초의(草衣) 등과 맺었던 교유가 그것이고, 『만일암지(挽日庵誌)』를 편찬하고 『대둔사지(大屯寺誌)』의 편찬에도 깊이 관여했던 것 등이 또한 그것이다.

다산은 조선 후기 영조 38년(1762), 경기도 광주군 마현(馬峴)에서 진주목사(晉州牧使) 정재원(丁載遠)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천재적인 재질을 타고난 그는 28세에 문과(文科)에 오르고 경기도 어사(御使), 병조참의(兵曹參議), 곡산부사(谷山府使), 승지(承旨)의 벼슬까지 지내면서 정조의 충애를 받았다. 그러나 다산은 순조 원년(1800), 소위 신유사옥(辛酉邪獄)에 관련되어 먼 남쪽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고, 18년의 긴 세월 동안 귀양살이를 했다. 그는 처음 강진읍 동문 밖의 한 주막에 거처하고 있었다. 그는 그 술집에서 얻은 한 방을 사의제(四宜齋)라고 이름 했지만 이곳에서 보낸 귀양살이 첫 4년은 그야말로 고독하고 적막한 생활이었다. 처음 그 지방 사람들은 거의가 다산을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두려워했다. 이것은 다산이 유배를 순종하지 않고 불궐(不軌)을

도모한다는 모락이 많았던 당시에 그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고적한 유배지에서 다산이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깊은 교분을 맺은 사람은 혜장선사(惠藏禪師, 1772~1811)였다.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다산이 강진으로 온 지 5년째 되던 1805년 가을 백련사(白蓮社)에서의 일이었다. 이때 다산은 44세, 혜장은 34세로 십년 후배였다. 혜장은 이해 봄 해남 대흥사에서 강진의 백련사로 옮겨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었다. 비록 열 살 차이의 사제(師弟)간의 정분이었고, 유불(儒佛)의 만남이긴 했어도 서로의 마음을 연 교분이었기 때문이다. 혜장은 다산으로부터 주역을 배웠고, 다산은 혜장으로 부터 차를 얻어 마셨다. 혜장은 승려이면서도 『주역(周易)』을 공부한 지 오래였다. 그가 다산을 만나고자 원했던 이유 중에는 「주역」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이기도 했다. 이들의 첫 문답은 주로 역리(易理)를 따지는 데 있었다. 혜장은 『주역』을 공부한 지 이미 20년이었으므로, 역학(易學)에 대한 실력이 대단했고, 다산 또한 이때 역학에 전력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첫 대화는 자연스러울 수 있었으리라. 이때부터 혜장은 다산으로부터 역학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고 다산은 사원을 중심으로 전해오던 다도를 혜장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차와 시가 오고 갔다. 다산의 시 중에서, ‘藏既爲余制茶云云’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다산은 이 지역에 전해오는 전통 차 맛을 본 그는 무척이나 차를 즐겼는데, 차는 그의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켜 주는 좋은 약이기도 했다. 막막한 유형지에서 만난 혜장, 그리고 그를 통해 맛본 차의 향기는 다산으로 하여금 새롭게 정신을 가다듬고 학문에 몰두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해 겨울이 되자 다산은 사의제로부터 강진을 뒤 우이산 우두봉(牛頭峰) 아래에 있는 한 작은 암자(지금의 高聲寺)인 보은산방(寶恩山房)으로 옮겼다. 다산이 보은산방으로 옮기게 된 데는 아마도 혜장의 청과 도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듬해 가을 다산이 학채(鶴采)의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다산동(茶山洞)으로 옮겨가기까지 보은산방은 다산역(茶山易)의 산실이 되고, 또 그가 다도를 익히는 도량이 되었다. 이곳에서 다산은 혜장을 위하여 무려 13수나 되는 시를 남겼다. 다산이 한 사람을 위하여 쓴 시의 양으로는 가장 많은 경우다. 이것만으로도 다산이 혜장에

게 쏟은 정의가 얼마나 두터운 것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교유는 혜장선사가 40세의 젊은 나이로 1811년에 입적하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다산은 차 양식이 떨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혜장에게 차를 빌었다. 다음의 「기증혜장상인결명(寄贈惠藏上人乞茗)」(丁茶山全書 卷6)이라는 시도 이 같은 경우에 씌어 진 것이다.

傳聞石廩底 듣자니 석름골에는
由來產佳茗 옛 부터 좋은 차가 난다네.
時當晒麥天 보리이삭 펄 철이 오면
旗展亦槍挺 한 잎 두 잎 새 싹이 자란 다오
窮居習長齋 궁하게 사는 사람 채식에 버릇되니
羶臊志已冷 노린내 비린내 나는 고기 먹을 뜻 없노라.
花猪與粥雞 돼지고기와 닭죽 같은
豪侈邈難竝 호사스런 음식 먹기
祗因痲癖若 현벽병의 고통이 있고
時中酒未醒 때때로 술을 마셔 깨지 않기 때문이랴오
庶籍已公林 바라오니 스님의 숲에 있는 차
小充陸羽鼎 육우의 차 술에 조금만 채워 주소서.
檀施苟去疾 베풀어주시면 내 병 물리치려니
奚殊津筏極 나룻배로 건너 줌과 어찌 다르리오
焙晒須如法 법대로 불에 쪼여 말리어
浸漬色方澄 물에 넣으면 그 차 빛 맑기도 하리라.

다산은 혜장선사에게 자기의 빈 차 술에 조금이라도 차를 채워주도록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그는 차를 구함이 호사스런 생활이나 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병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귀양살이 서러운 나그네 신체의 그가 어찌 고기를 먹어 배부를 틈이 있었고, 소화를 염려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가슴에 갑자기 통증이 오는 현벽병과 술 마셔 흐릿한 정신을 차로써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만은 아니고 당시 그의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의 「결명소(乞茗疏)」에도 「내 몸에 병 있어 애오라

지 차를 빈다오,」 「병중에 크게 탐함에 노동의 일곱 잔도 말라 버렸오」 등의 표현이 보인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조차 꺼리는 적막한 유형지의 생활 중에서도 그는 부패한 탐관오리와 고통에 허덕이는 농민들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한밤중 책상을 치고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고 답답한 현실과 가슴 속 울분을 진정시키고자 술을 마셔도 취할 줄 모른다고 토로할 정도로 마셨다. 답답한 가슴, 취한 정신을 차로써 풀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스님 당신께서 보시를 해준다면 내 현벽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나룻배로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주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으며, 중생의 구제를 염원하는 스님께서 어찌 이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이오라고 간곡히 차 보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혜장의 제자 색성(蹟性)이 다산에게 차를 보내준 적이 있다. 이에 다산은 한수의 시로써 보답했다. 곧 다음의 「사색성기다(謝蹟性寄茶)」다.

藏公衆弟子 혜장스님의 많은 제자 중에서도
 頗也最稱奇 색성스님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오
 已了華嚴教 이미 화엄학을 배웠고
 兼治杜甫詩 겸하여 두보의 시까지 익혔다오
 草魁頗善焙 좋은 차 잘 법제하여
 珍重慰孤羈 외로운 나그네 위로함이 진중하다오

색성으로부터 차를 선물 받아 기뻐지만, 그러나 다산을 위하여 차를 만들었던 혜장선사는 그의 제자 색성이 다산에게 차를 주었음을 알고 주지 않았다. 이에 다산은 끝내 그 차를 나누어 줄 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與可昔饒竹 여가(與可)는 옛적에 죽순을 먹었다지만
 籜翁今饒茗 탁옹(籜翁)은 이제 차를 탐한다오
 沉爾棲茶山 하물며 네가 다산에 삶에
 漫山紫筍挺 온 산에 붉은 죽순 돌아난다오
 弟子意雖厚 제자의 뜻은 후한데
 先生禮頗冷 선생의 예는 그렇게 쌀쌀 하오
 白斤且不辭 백 근이라도 사양하지 않겠거늘

兩苞施宜竝 두 포 정도 베풀어줌이 마땅하다오
 如酒只一壺 술이라면 어찌 한 병만으로
 豈得長不醒 오래오래 깨지 않을 수 있으리오
 已空彥沖瓷 이미 언충(彦沖)의 차 그릇이 비었고
 辜負彌明鼎 미명(彌明)의 술이 막혔다오
 四鄰多霍癘 이웃에는 광체가 많으니
 有乞將何極 차를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리오
 唯應碧潤月 푸른 시냇물에 달이 비쳤으니,
 意吐雲中漉 마침내 운중(雲中)의 맑음을 토하리.

여가(與可)는 송나라 문동(文同)의 자(字), 탁옹(籜翁)은 다산의 또 하나의 호다. 혜장선사의 제자 색성의 뜻은 후한데 색성의 스승인 혜장 당신의 예는 자못 쌀쌀하다고 몰아 부치고 있다. 제자보다도 그 인심이 더 쌀쌀하다는 원망이다. 추시는 지기(知己), 초의스님에게 밀린 차 세금 보내주지 않으면 매를 내리겠다고 장난한 적이 있다. 다산은 그 제자격인 혜장에게 어찌 그렇게 예의가 없느냐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백 근이라도 준다면 사양하지 않을 터인데, 두 포 정도야 주는 것이 당연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한 병의 술로써야 오래오래 취할 수 없듯이, 한 포의 차로써야 어찌 만족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핑계를 대면서 사방에 광체 난 사람이 많아 차를 찾으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하겠는가 조른다. 다산은 결명소를 썼고, 이 글은 초의의 「동다송(東茶頌)」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것이었다. 「나그네는 최 근에 차를 탐하지만 겹하여 약으로도 쓴다오」로 시작한 이 글은 「목마르게 회구하는 이 뜻 잊지 말라」고 끝맺고 있다. 그는 또한 이 글에서도 「고해를 건너는 나루로써 가장 귀한 것은 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육바라밀은 고해를 건너 저 피안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나룻배. 그 육바라밀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남에게 베풀어주는 보시라고 당신네 불교에선 강조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 스님 당신께선 고해의 나룻배가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나에게 차 보시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산이 울적하고 막막한 가슴을 열고 학문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차의 덕이 많았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다산과 혜장의 교분은, 혜장이 40세 젊은 나이로 입적하던 1811년까지 계속되었고, 다산은 다시 색성, 초의 등의 스님에게 차를 얻어 마셨으며, 다산의 두 아들 학연과 학유는 훗날 초의와 같은 인연을 맺었으니, 대를 잇는 인연이었다.

Ⅲ. 茶山과 寶林茶

초의선사는 다산보다 25년이나 나이가 적었다. 초의는 다산에게서 유서를 빌어 읽고 시를 배웠다. 또한 혜장선사와 마찬가지로 역학을 배우기도 했다. 초의선사의 자(字) ‘중부(中孚)’라는 것도 주역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었다. 다산은 초의의 스승이자 선배였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격의 없는 지기이기도 했다. 임신년에는 초의와 다산이 함께 백운동에서 하룻밤을 즐겼다. 이때 초의는 백운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다산은 백운동의 승사를 시로써 읊기도 하고 다산도(茶山圖)를 그리기도 했다. 초의가 이때 그린 백운도(白雲圖)와 다산이 그린 다산도(茶山圖)는 현재 강진 이폐점(李敝點) 씨가 소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의 교류에는 풍류가 있었던 것이다. 또 다산과 초의에게는 그들이 즐겨 마시는 차가 있었다. 다산은 이미 혜장으로부터 다도를 배웠던 것이고, 초의는 한국다도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다도에 조예가 깊던 인물이다. 다산이 처음 다도를 알게 된 것은 혜장으로부터겠지만 다도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초의의 영향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산이 말하는 차는 생강차 등이 아니라 녹차였다. 그는 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茶字를 糖飢고처럼 마시는 따위로 인식하여 무릇 약물의 단조롭게 다리는 것은 다 이를 차라고 말하여 생강차, 굴피차 모파차 뽕차, 송지차 오과차라고 하여 관습적으로 항상 쓰는 말로 삼는데, 이는 잘못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법이 없는 것 같다.(아연각비 권1)

다산은 차의 재배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그리하여 그는 경세유표 권2에

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방 여러 고을에서 산출되는 차는 매우 좋다. 내가 본 바로는 해남·강진·영암·장흥 등 모듬 바닷가 고을은 차가 나지 않는 곳이 없다. 내 생각에는 차가 나는 모든 산은 지방관으로 하여금 재배하도록 하고, 백성들의 樵牧을 금지하여 그 무성해진 뒤 해마다 몇 근 차를 임행시에 바쳐서 차를 다시 滿河省에 보내 좋은 말을 사다가 목장에 頒給하는 것도 또한 나라의 쓰임을 넉넉하게 하기에 족할 것이다.(경세유표 권2)

그리고 호남에는 황차, 만덕차, 보림차 등이 있었는데, 모두 다산과 관련이 있었다. 黃茶는 차탕이 누린 약 발효차다. 실학자 趙在三(1808~1866)은 松南雜識에서, 해남에는 예부터 황차가 있는데, 세상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오직 정약용이 알뿐이어서 丁茶라고 이름한다고 했다.(海南古有黃茶 世無知者 惟丁若鏞知之 故名丁茶又南茶, (松南雜識 아세아문화사, 1986, p.340) 이규경의 다변증설에 (오주연문장전산고 56)에 의하면, 다산 정약용이 謫居 時에 강진 만덕사의 차 잎을 찌서 말려 작은 덩이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만덕차라고 했다. 만덕사지(鶴林, 騎魚 등편집, 다산 감정, 1813년 편찬)에는 만덕차는 품질이 매우 좋지만, 해가 갈수록 따는 이가 많아서 승려가 지키기 어렵고 차나무도 차차 없어진다고 했다. 보림사 대밭의 차로 만든 보림차는 19세기 후반에 유명했다. 평소에 차를 즐겨 마셨던 이유원(1814~1888)은 임신년(1872, 고종 9) 上元에 四時香館에 있으면서 古鏡禪師와 보림차를 마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이라고 평했다.(임하필기 권32) 그리고 그는 보림차의 법제와 그 품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진 寶林寺 대밭의 차는 洙水 丁若鏞이 체득하여 절의 승려에게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 품질은 普洱茶 못지 않으며, 곡우 전에 채취한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 이는 雨前茶라고 해도 될 것이다. (이유원(1814~1888), 임하필기 권32)

다산은 실제로 구증구포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곧 범석호가 병오년에 회

포를 기술한 시 십 수를 차운하여 송옹에게 부치다(次韻范石湖丙午書懷十首簡寄淞翁)라는 시(여유당전서 1집 권6; 한국문집총간 281, p.109) 중에

洩過茶經九蒸曝 설사하고 지내니 구증구포한 차를 다리고
厭煩雞畜一雄雌 번거로움 귀찮아 닭은 한 쌍만 기른다오

이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시문으로 유명했던 송나라 범성대(范成大)의 호가 석호(石湖)다. 그런데 이 구절을 차를 아홉 번 비벼 말리는 법을 간단하게 줄여야 한다(정영선, 한국의 차문화...)거나 혹은 다경의 구증폭을 잘 못하고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정영선, 한국의 차문화, 한국차문화의 중흥조론, 차문화연구지 7권, 1998, p.13) 그러나 이 구절은 설사하고 지내니 구증구포한 차가 좋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아무튼, 이 구절을 통해서 다산이 차의 구증구포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산이 보림사 승려들에게 구증구포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이유원의 이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다산과 이유원의 생존 시기가 5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도 이유원의 이 설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보림차의 법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사해야 하겠지만, 19세기 후반에 이 차가 유명했던 것은 사실이다. 범해는 茶歌에서 보림사 작설은 감영에 실어간다고 했다. 草衣가 그의 先師인 玩虎大師를 위하여 三如塔을 건립한 다음 都尉 海居 洪顯周에게 銘과 詩를 부탁하고 紫霞 申緯에게 서문을 부탁하면서 보림차를 선물하였다.(임하필기 권32, 삼여탑, 신위 경수당전고 47권 초의..., 정영선) 領選使 金允植(1841~1920)은 학도와 工匠을 인솔하고 청나라의 天津으로 가서 그들을 器機局에 소속시키는 한편 北洋大臣 李鴻章을 만나 조미수호조약의 막후 교섭을 한 바 있다. 그는 1882년 1월 13일에 天津海關道 軍機所南局을 방문, 그곳의 관원들에게 보림차 55원씩을 증정하고, 이튿날에는 동국의 관원들에게도 55원씩을 증정하였다.(음청사 상, 국사편찬위원회, 1985, p.67)

IV. 茶信契

다산이 정들었던 강진을 떠난 것은 그의 유배생활 18년 만인 1818년으로 그의 나이 58세 되던 해였다. 다산은 강진을 떠나게 되자 다신계(茶信契)를 만들었다. 이것은 제자들과의 두터운 정의를 끊지 않고자 함이었고, 이곳을 떠나서도 차를 구하고자 함이었다. 이 다신계는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 다산을 모시고서 받기한 것이다.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다.¹²⁾

사람이 귀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무리가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고 헤어져서 서로 잊는다면 이것은 금수의 길이라 할 것이다. 우리들 수십 인이, 여기에 무진년 다산이 강진읍에서 굴동(橘洞)으로 옮겨온 순조 8년 봄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모여 살고 글을 쌓아 형제처럼 지내다가 지금 함장(函丈)이 북으로 돌아가시니 우리들도 헤어져서 만약 이내 막연히 서로 잊고 이른바 강신지도(講信之道)를 생각지 않는다면 역시 경박한 일이 되지 않으리오. 지난봄에 우리들은 미리 이것을 우려하여 돈을 모아 계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돈 한 냥씩 내었는데, 2년 동안에 이자가 늘어 지금 그 돈이 35냥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헤어진 뒤에는 돈의 출납이 마음대로 되기 어려울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던 중 함장이 가지고 계시던 보암서촌(寶巖西村)의 박전수구(薄田數區)를, 떠날 때에 팔고자 했지만 잘 팔리지도 않는지라, 여기에 우리들이 35냥의 돈을 행장에 넣어 드렸더니 함장은 서촌수구(西村數區)의 논을 돌려 계물(契物)로 만들고, 다신계(茶信契)라고 이름 지어 일후(日後)의 강신(講信)의 터전으로 삼기로 하여 그 조례(條例)의 전토결자(田土結資)의 수량(數量) 같은 것을 아래에 기록하는 바이다.

이상이 다신계를 받기하게 된 취지다. 이 글 다음에 18명의 문하생 계원의 이름을 좌목(座目)이라 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다신계에 속한 전답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약사(約事)를 기록하였다. 약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서로 약속하고 있다.

- ① 해마다 청명(淸明) 한식(寒食)날 계원은 다산에 모여서 계사(契事)를 닦고 운(韻)을 내어 시를 지어 연명작서(聯名作書)하여 유산(酉山)에게 보낼 것, 이날의 어가(魚價) 일량(一兩)은 계에서 내며 양식 1되는 각자 가져올 것.
- ② 곡우(穀雨)에 연한 차잎을 따서 이것을 불에 말려 1근(斤)을 만들고 입하(立夏)에 만다(晩茶)를 따서 작병(作餅) 2근(斤)하여 이 두 가지 차와 함께 시찰(詩札)을 부칠 것.
- ③ 국화(菊花) 때에 계원이 다산에 모여 계사(契事)를 닦고 시회(詩會)를 열 것. 이 시를 서산(西山)에게 보낼 것과 기타의 절차와 준비는 청명 때와 같이 한다.
- ④ 상강(霜降)에 신면포(新綿布) 한 필(疋)을 사되 그 세(細)는 그 해의 추수의 많고 적음이며 백로(白露)에 비자(櫃子) 5되를 따서 면포(綿布)와 같이 유산(酉山)에게 보낼 것.
- ⑤ 차의 역(役)은 각인(各人)이 수를 나누어 각자가 마련할 것이며, 스스로 마련을 못하면 전오분(錢五分)을 신동(信東淳菴의 小諱)에 주어서 굴동의 아이를 시켜 차를 따서 수를 채울 것.
- ⑥ 암개초가(菴蓋草價) 일량(一兩)은 입동(立冬)날 계에서 거두어 굴동의 제자로 하여금 이는 일을 감독케 하여 동지(冬至) 전에 새로 덮게 할 것이며, 동지를 넘긴다면 이듬해 봄의 다역(茶役)은 이 6명이 모두 담당할 것이며, 다른 계원은 돕지 말 것.
- ⑦ 모든 역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출한 후 만약 남은 돈이 있으면 착실한 계원에게 돈을 빌려 주되 한 사람에 2량을 넘겨서 주지 말 것. 그리고 15냥 혹은 20냥이 차면 논을 사서 계에 붙이되, 그 식리의 돈은 20냥을 넘지 말 것.

이상이 다신계원들이 서로 약속한 약사의 내용이다. 이 약사에서 특히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것은 곡우에 연차(嫩茶), 입하에 만차(晩茶)를 따도록 한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다산 자신이 체득(體得)한 바 차 따는 적절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계원이 일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인 봄과 가을에 이곳 다산에 모여 계사를 닦고 시회를 갖도록 한 것도 꽤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다신계까지 조직해 두고 강진을 떠난 다산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다산동을 잊을 수가 없었다. 동암(東庵)의 지붕은 잘 이었는지? 뜰에 심은 홍도(紅桃)는 죽지나 않았는지? 우물 쌓은 돌은 무너지지나 않았는지? 못의 두 마리 잉어는 얼마나 컸는지? 백련사로 가는 길가에 심었던 동백꽃은 잘 자라고 있는

지? 차는 철을 놓치지 않고 잘 따는지? 이 모든 것들이 걱정이었고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꽃 한 포기 잉어 한 마리까지 걱정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차인으로서의 다산의 모습이다.